

##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의사소통유형, 양육행동의 차이

A Comparative Study on Mothers in Counseling and Mothers in  
Non-counseling Groups :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ype of Communication, Parenting Behavior

오지현(Ji Hyun Oh)<sup>1)</sup>

조유진(You Jin Cho)<sup>2)</sup>

### ABSTRACT

This research was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s mothers in counseling and mothers in non-counseling (comparison) groups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ype of communication and parenting behavior. Subjects were 91 mothers having counseling and 133 mothers in the non-counseling group.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showed that mothers in the non-counseling group reported more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than the counseling group. Mothers in the counseling group reported mor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ore negative communications and more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an the comparison group.

**Key Words** :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의사소통유형(type of communica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상담군 아동 어머니(children's mothers in counseling group).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에는 아동의 정서, 행동적인 문제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 발달과 부적응 등의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증명된 아동의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로 하여 상담기관을 찾게 되고, 이들에게

<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sup>2)</sup> 인덕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 Jin C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duk University

E-mail : cyj@induk.ac.kr

아동 상담가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아동상담은 성인상담과 달리 아동을 상담실로 의뢰하고 종결하는 과정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담과정에서 부모의 참여 및 협조가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적 아동상담을 위해서 상담자는 부모를 또 하나의 내담자로 인식하여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오지현·성영혜·조유진, 2008).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적 사회화의 요인으로써 다른 어떤 외적 요인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며(Saarni, 1989), 아동의 정서능력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라는 주장도 있다(Gole, 1995).

요컨대, 아동의 건강한 정서, 사회성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아동상담에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며 서로에 대한 민감성이 가장 높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어머니 변인을 탐색해 보는 것은 실제 부모상담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영·나유미, 1999), 자녀의 정서 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적 정서 조절과 관련 있고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낸 반면, 통제가 강하고 민감하지 못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역기능적인 정서 조절과 관련 있으며 타인

에게 비협조적이고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Calkins, 1994; Dekovic & Janssens, 1992).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아동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들 간 의사소통의 질은 자녀의 정서 발달 및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Adams, 1980).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많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아동의 심리적 적응능력,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양현아·박영애, 2004; 장영애·박정희, 2008; 장영애·이영자, 2007). 이렇듯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보다 최근의 연구들(곽소현·김순옥, 2006; 박영애·최영희·박인진, 2002; 송현정, 2008; 이경숙, 1997; 정미경·김영희, 2003)은 어머니의 변인으로 행동특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애착 또는 성격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과거력 또는 인지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변인을 짚어 본 것으로써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직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상기한 관점과 유사한 맥락으로 모-자녀 관계에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강조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과 관계에서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Dix, 1991; Dunn, Brown, & Bearsall, 1991),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 및 정서표현 성향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자녀와의 교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Siegel & Hartzell, 2004),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정서적 특성 또한 중요하게 탐색해 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해 최근 각기 다른 맥락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정서적 특성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박보은·정윤경, 2008; 배민정·정윤경, 2008; 홍윤기,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 행동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몇몇 주목할 만한 연구에서 정서 관련 변인들이 보고되었는데 최근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정서표현성만으로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 개념이 정서와 개인의 적응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증명하고 있다(이승미·오경자, 2006; 최해연·이동귀·민경환, 2008; King & Emmons, 1990; Pennebaker, 1985). 즉, 행동으로 드러난 표현이나 억압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등장하면서 이는 개인의 정서적·사회적 기능의 핵심적 관련변인으로 간주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양가성은 삶의 만족과는 부적상관을, 신경증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고통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밝혔으며(Katz & Campbell, 1994; Mongrain & Vettese, 2003; Mongrain & Zuroff, 1994), 정서인식능력과의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밝혔다(King, 1998). 나아가 Mongrain과 Vettese(2003)은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 관계적 기능을 탐색하여 정서표현의 양가성이 높은 여성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며, 긍정적 정서표현이 낮고, 무엇보다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

언어적인 의사소통 간의 일치가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낮고 자녀의 정서에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며, 의사소통도 비일관적,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특히, 정서표현양가성 변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에만 주목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어머니 특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곽소현·김순옥, 2006; 배민정·정윤경, 2008; 정미경·김영희, 2003)에서 모두 일반아동의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표집해서 나온 연구결과에 관한 제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로 아동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와 상담경험이 없는 비상담군 아동의 어머니 각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 특성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화시킴으로써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군과 비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1-1 상담군과 비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차이가 있는가?

1-2 상담군과 비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2-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2-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상담군의 경우 서울 및 경기지역의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복지관 내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의 내담아동들의 어머니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정서,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제외하였다. 비상상담군의 경우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상담경험이 없는 아동의 어머니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로 인해 상담기관에 내원하여 아동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 집단, 그리고 아동상담 경험이 없는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 집단을 구분하여 표집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정서표현성(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 EEQ)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하정(1997)

<표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특성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담군 N=91, 비상상담군 N=133)\*

어머니 변인	구 분	상담군 N (%)	비상담군 N (%)
연 령	만 29세 이하	2 ( 2.2)	0 ( .0)
	만 30~39세 이하	45 (49.4)	65 (48.9)
	만 40 이상	44 (48.4)	68 (51.1)
학 령	고등학교졸업 이하	32 (35.2)	67 (50.4)
	2년제 대학졸업	23 (25.3)	34 (25.6)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6 (39.6)	31 (23.3)
직 업	사무직	19 (20.9)	35 (26.3)
	전문직	16 (17.6)	20 (15.0)
	판매직 및 기타	9 ( 9.9)	20 (15.0)
	전업주부	47 (51.6)	58 (43.6)
월수입	200만원 미만	15 (16.5)	26 (19.5)
	200~500만원 미만	63 (69.3)	98 (73.7)
	500~1000만원미만	10 (11.0)	8 ( 6.0)
	1000만원 이상	3 ( 3.3)	1 ( .8)

<표 1> 계속

아동 변인	구 분	상담군 N (%)	비상담군 N (%)
아동 성별	남	67 (73.6)	57 (42.9)
	여	24 (26.4)	76 (57.1)
아동 학년	3-4학년	56 (61.6)	62 (46.7)
	5-6학년	35 (38.5)	71 (53.4)
상담 기간	3개월 미만	24 (26.4)	.
	3~6개월 미만	31 (34.1)	.
	6개월~1년 미만	12 (13.2)	.
	1년 이상	24 (26.4)	.
문제 유형	사회성 및 또래관계	28 (30.8)	.
	우울, 불안	23 (25.3)	.
	주의산만, 과잉행동	17 (18.7)	.
	학습 및 학교 적응	13 (14.3)	.
	부모-자녀관계	8 ( 8.8)	.
	기타	2 ( 2.2)	.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친밀한 정서표현으로 구성되어 모두 16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각 하위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표현은 일상에서 기쁨, 행복,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를 측정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개인의 슬픔, 화, 짜증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정도를 측정하며, 친밀한 정서표현은 대인관계 시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정의 연구(1997)에서 요인 부하량이 0.3 이하인 6, 12번 문항을 제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정서표현양가성(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 AEQ)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 타당화한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 갈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는 정서표현, 정서관리, 정서규제, 미묘한 정서표현에 대한 고민과정에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양면성 혹은 양가감정을 측정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하는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척도 제작 시에는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10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18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두 하위요인 군집 간 상관이 높아 단일 구성개념으로 본다는 King과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 척도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

&lt;표 2&gt;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6	4, 8, 9, 11, 13, 15*	.70
	부정적 정서표현	4	2, 5, 10, 14	.60
	친밀한 정서표현	4	1, 3, 7, 16	.68
정서표현 양가성		28	1~28	.93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	10	1, 3, 5, 7, 9, 11, 13, 15, 17, 19	.91
	역기능적 의사소통	10	2, 4, 6, 8, 10, 12, 14, 16, 18, 20	.86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9	1, 8, 15, 22, 28, 34, 40, 44, 48	.89
	애정	9	2, 9, 16, 23, 29, 35, 41, 45, 49	.89
	권위주의통제	9	3, 10, 17, 24, 30, 36, 42, 46, 50	.77
	과보호	9	4, 11, 18, 25, 31, 37, 43, 47, 51	.75
	성취	6	5, 12, 19, 26, 32, 38	.73
	적극적 참여	6	6, 13, 20, 27, 33, 39	.80
	일관성 규제	3	7, 14, 21	.46

주. \*는 역채점 문항임.

도 요인의 문항구성과 전체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3) 의사소통 유형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각 하위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상호간의 감정과 정보 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정도가 높은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 척도와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며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역기능적 의

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4) 양육행동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 자신의 현재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본 척도는 총 51개 문항이 7개의 하위변인(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일관성 있는 규제의 신뢰도 계수가 .46으로 낮아 하위요인에서 제외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9년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각 기관의 상담자들과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각 기관과 학교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이 상담자와 교사에게 공개됨을 우려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각에 봉투마다 밀봉할 수 있도록 양면테이프를 붙이도록 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차이가 있는가?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하위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평균 차이

종속 변인	독립변인	N	M(SD)	t
긍정적 정서표현	상담군	91	19.29(3.39)	-3.32**
	비상담군	133	20.77(3.23)	
부정적 정서표현	상담군	91	11.54(2.54)	-1.96
	비상담군	133	12.63(2.46)	
친밀한 정서표현	상담군	91	10.71(2.53)	-1.65
	비상담군	133	11.29(2.61)	

\*\**p*<.01

<표 3>에 의하면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t*=-3.32, *p*<.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이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공감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상담군, 비상상담군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평균 차이

종속 변인	독립변인	N	M(SD)	t
정서표현 양가성	상담군	91	87.27(15.34)	4.12***
	비상담군	133	78.59(15.63)	

\*\*\**p*<.001

<표 4>에 의하면 상담군과 비상상담군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t*=4.1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이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압의 필요성 사이에 갈등하는

성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상담군, 비상상담군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하위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평균 차이

종속 변인	독립변인	N	M(SD)	t
개방적 의사소통	상담군	91	30.53(7.00)	-6.74***
	비상담군	133	36.29(5.07)	
역기능적 의사소통	상담군	91	26.66(6.20)	7.71***
	비상담군	133	20.85(4.38)	

\*\*\**p*<.001

<표 5>에 의하면 상담군과 비상상담군에 따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적 의사소통(*t*=-6.74, *p*<.001), 역기능적 의사소통(*t*=7.71,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은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 보다 자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방적 의사소통은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상담군, 비상상담군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

<표 6>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 차이

종속 변인	독립변인	N	M (SD)	t
합리적 지도	상담군	91	32.98(4.73)	-4.98***
	비상담군	133	35.90(4.01)	
애정	상담군	91	30.80(5.25)	-5.68***
	비상담군	133	34.50(4.46)	
권위주의 통제	상담군	91	26.76(4.47)	3.56***
	비상담군	133	24.52(4.73)	
과보호	상담군	91	27.48(5.08)	2.91**
	비상담군	133	25.59(4.58)	
성취	상담군	91	21.09(2.89)	-6.66***
	비상담군	133	23.63(2.75)	
적극적 참여	상담군	91	19.82(3.26)	-4.52***
	비상담군	133	21.80(3.17)	

\*\**p*<.01 \*\*\**p*<.001

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집단에 따른 현재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합리적 지도(*t*=-4.98, *p*<.001), 애정(*t*=-5.68, *p*<.001), 권위주의적 통제(*t*=3.56, *p*<.001), 과보호(*t*=2.91, *p*<.01), 성취(*t*=-6.66, *p*<.001), 적극적 참여(*t*=-4.5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은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 보다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통제하고 지나치게 과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감과 민감성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관련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자녀의 지적, 사회적 성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자녀의 일에 대한 참여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비교

######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비교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가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 보다 긍정적 정서 표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는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 보다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는 반면,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는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경우,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더 적음을 보고한 배민정(2008)의 연구나, 걸음마기 유아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거나 표현한다고 보고한 Denham(198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이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어떤, 어느 정도의’ 정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능력과 연관된다는 주장(Eisenberg et al., 1998)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Jones와 Eisenberg(1997)는 가족 내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우세할수록 초등학교 여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설계나 측

정변인 상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요약하자면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정서적인 특성으로 모-자녀 관계나 자녀의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며, 이후 정서문제 및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적 개입 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바이다.

######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비교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가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보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는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보다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거나 정서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표현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정서표현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어머니의 아동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낮게 경험하는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보고한 배민정과 정운경(2008)의 연구나,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홍윤기(2009)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국내외 선행연구들(박지선·김인석·현명호·유재학, 2008; Mongrain & Vetteese, 2003; Mongrain & Zuroff, 1994)은 정서표현양가성이 신경증이나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주요변인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또는 신경증적 성향이 유아의 부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다른 연구들 (Cummings & Davies, 1994; Rubin, Burgess & Dwyer 2003)과 관련지어 볼 때 정서표현양가성이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부적응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정서표현양가성은 앞서 정서표현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로로든 모-자녀 관계나 자녀의 적응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이후 정서문제 및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탐색과 개입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 비교

### 1)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비교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가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 보다 자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방적 의사소통은 더 적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는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며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으로 하여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반면에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또래관계 발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양현아 · 박영애, 2004; 장영애 · 박정희, 2008)나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 낮은 가족생활만족도,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이영숙 · 김정옥, 2002; 장영애 · 이영자, 2007)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재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아동의 정서 문제 및 부적응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동적인 측면인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비교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은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 같은 양육행동에서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극적 참여와 같은 양육 행동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은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과 적절한 규제를 보일 때 친사회적 행동과 학업적 성취를 증진시키고 공격적, 비사회적 행동문제가 감소된다고 밝힌 연구결과나(Bierman & Smoot, 1991; Demitrovich & Bierman, 2001; Mattanah, 2001), 어머니의 권위적이고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인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게 하고 (박철웅, 2002),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및 거부, 낮은 자아 존중감, 정서적 무반응 등의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손소영,

2003; Khaleque & Rohner, 200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중 과보호는 자녀의 우울, 불안, 강박, 편집증 등의 정서적 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오동재·전성일·장환일, 1993), 과보호 양상이 많을수록 자녀의 정서불안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염숙경·이영미, 1999; Parker, 1979; Parker & Lipscombe, 1981)와도 일치한다.

요약하자면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Abidin, 1990; Creech, 1991)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 있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각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논의되어왔던 정보들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함의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정서관련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서표현양가성’ 개념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연관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아동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 중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과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부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경우 표집상의 어려움

으로 인해 상담기간이 3개월 미만에서 1년 이상에 걸쳐 넓게 분포된 내담아동의 어머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가 상담초기에 갖고 있었던 정서·행동적 특성들이 상담과정이 진행되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 때문에 내적타당도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동간의 지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유형 또한 함께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재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에 보여질 수 있는 정서적 특성(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과 행동적 특성(의사소통 유형, 양육행동)들이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계는 횡단 연구설계로서 단지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의 정서·행동적 특성이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부모상담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행동상의 문제의 원인이 어머니의 정서·행동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의 특성이 시간적 경과 후 자녀의 정서·행동상의 문제 발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중단 연

구설계에 의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과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들의 정서적 특성(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과 행동적 특성(의사소통 유형, 양육행동) 상의 차이를 밝혔을 뿐,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정서문제나 부적응에 어떠한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강도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어머니 변인들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상담 개입에 보다 유용한 임상적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곽소현·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보은·정윤경(2008). 대학생이 회고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인생초기의 사회적 삶*, 189-190.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9.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박지선·김인석·현명호·유재학(2008). 정서자각 결함,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

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3), 571-581.

박철웅(2002).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민정(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민정·정윤경(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양육태도 및 자녀의 문제 행동(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인생초기의 사회적 삶*, 193-194.

송현정(2008). 어머니의 아동기 모-자녀 관계 및 성격 특성이 현재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소영(2003).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현아·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 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염숙경·이영미(1999). 내면화 증상아동의 모(母) 양육관련 변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놀이치료연구*, 2, 1-12.

오동재·전성일·장환일(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32, 896-903.

오지현·성영혜·조유진(2008). 부모상담에서 어머니의 자기은폐 수준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작업동맹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197-211.

이경숙(1997). 어머니의 특성불안과 자녀교육관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미·오경자(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5(1), 113-128.

이영·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

- 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20(3), 19-32.
- 이정윤 ·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2), 69-85.
- 장영애 · 이영자(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 정미경 ·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최혜연 · 민경환(2007).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여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혜연 · 이동귀 · 민경환(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하 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기(2009). 어머니 자녀간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련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ierman K. K., & Smoot, D. L. (1991). Linking family characteristics with poor peer relations : The mediating role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3), 341-358.
- Creech, F. C. (1991).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 related to parental interpersonal support and selects parental attribu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ussell Sage Foundation.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Demitrovich, C. E., & Bierman, K. L. (2001).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 Multiple pathway of influ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7(2), 235-263.
- Denham, S. (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y*, 59(3), 368-37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Kahana-Kalman R, & Montague D. (1998). The perception of emotional expressions by 4-month-old infants : familiarity effec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238.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 Khaleque, A. M.,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 meta 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54-64.
- King, L. A. (1998).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reading emotions in situations and f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3), 753-76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Mattanah, J. F. (2001). Parenting psychological autonomy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 More than just limit-setting and warmth. *Merrill Palmer Quarterly*, 47(3), 355-376.
-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15-18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lovey, P., Mayer, J. D., Golman, S. L., Turvey, C., & Pall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125-154).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egel, D. J., & Hartzell, M. (2004).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 Penguin.
- St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9년 6월 30일 투고, 2009년 9월 3일 수정  
2009년 9월 11일 채택